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정권이 법치 죽였다” 금속노조, 규탄 기자회견 열어 ... “새로운 삼성을 위해 퇴진하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1월,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징역을 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13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금속노조와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은 이재용 출소 현장에서 ‘삼성 노조파괴 범죄 피해 당사자들이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용 특혜 가석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조파괴범죄자 이재용 가석방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와 재벌의 ‘특권 동맹’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법치를 죽이고 자신들이 강조하던 정의, 공정, 평등이 자본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했다”라며 규탄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이재용을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그 자리에 가두려 한다”라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구치소 과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 민주노총을 가두려 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산



재에서 노조파괴까지, 이재용과 삼성그룹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가 죽었다”라며 “삼성은 노동조합을 허용한다면서 노사협의회로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여전히 진행 중인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범죄행위를 지적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누구나 지은 죄만큼 처벌받아야 한다. 금속노조는 앞으로 똑똑히,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돈으로 권력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조장희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 의장은 “삼성은 미래전략실을 만들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를 해고하고, 징계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미행하고 감시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노조 와해를 시도하는 등 조직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삼성에서 첫 민주노조 깃발을 띄우고 10년 동안 일어난 일을 압축해서 설명했다.

조장희 의장은 “2020년 5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자본의 노조파괴 범죄를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라면서 “재수감을 피하고, 국정농단 가담 범죄의 감형을 위해서 사과를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장희 의장은 “삼성노동자로서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한다. 이재용은 삼성의 책임자답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떳떳하게 책임지고, 처벌 받아라”라면서, “새로운 삼성을 위해서 퇴진하는 것이 삼성을 위한 길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